

국민연금 받는다... 노인 60만 명 기초연금 '삭둑'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18.6%가 억울한 불이익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1인당 평균 8만3226원 깎여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2021년 597만3059명·2022년 623만8798명·2023년 650만8574명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2021년 265만367명·2022년 290만9733명·2023년 317만5082명으로 매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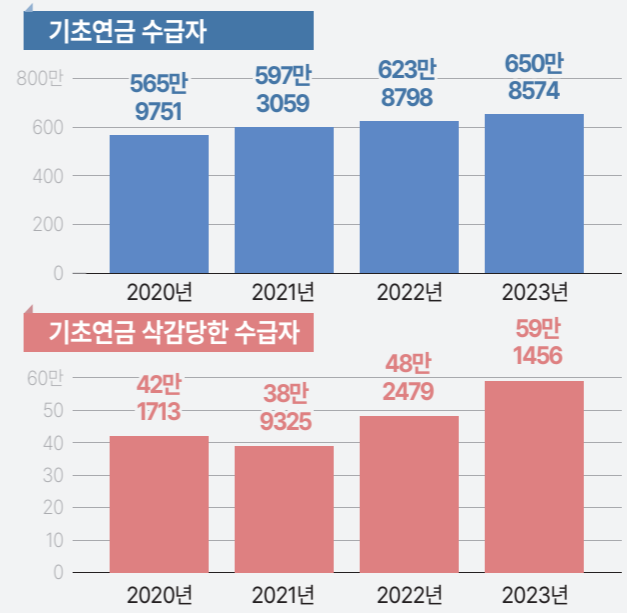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500만 원·2021년 276억1600만 원·2022년 365억1200만 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 원으로 거의 5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았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 기초연금 삭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김선민 의원실
단위:명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의대 수시 접수 사흘 만에 모집 정원 7배

37개 의대 모집정원 2918명... 1만9324명 지원 가천대·가톨릭대 일부 전형 경쟁률 60대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모집인원 대비 약 7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다.

진학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을 보면 11일 오전 9시(대학별 경쟁률 집계 시간 상) 기준 전국 37개 의대 수시모집에 총 1만9324명이 지원했다. 이들 대학의 모집인원이 2918명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경쟁률은 6.62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을 비공개한 서울대와 이날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단국대(천안)·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수시다.

이런 수시 원서 접수는 9~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스가천대 스가톨릭관동대 스가톨릭대 스가원대 스건국대(글로벌) 스간양대 스경북대 스경상국립대 스경명대 스고신대 스대구가톨릭대 스동국대(와이즈) 스동아대 스순천향대 스아주대 스연세대(미래) 스영남대 스울산대 스원광대 스을지대 스인제대 스인하대 스전남대 스전북대 스제주대 스조선대 스충남대 스충북대 스한림대 등 29개교는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다. 고려대와 서울대 두 곳의 원서접수 기간은 9일부터 이날까지다.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가천대 스동국대(와이즈) 스동아대 스순천향대 스아주대 스연세대(미래) 스영남대 스울산대 스원광대 스을지대 스인제대 스인하대 스전남대 스전북대 스제주대 스조선대 스충남대 스충북대 스한림대 등 29개교는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다. 고려대와 서울대 두 곳의 원서접수 기간은 9일부터 이날까지다. 스경희대 스부산대 스성균관대 스중앙대 스한양대 스연세대(서울) 스이화여대 등 7개 의대는 10일부터, 단국대(천안)는 의대 중 마지막으로 이날부터 원서를 받는다.

제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29명)을 제외하고 39개 의대가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3089명이다. 26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모집한다.

가천대 논술전형(68.7대 1)·가톨릭대 논술전형(64.16대 1)·성균관대 논술전형(46.9대 1)·연세대(미래) 논술전형(46.27대 1)·경북대 논술전형(33.86대 1)·인하대 논술전형(32대 1) 등 대학·전형에 따라 이미 경쟁률이 30대 1 이상으로 치솟은 곳도 있다.

아직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남았다는 점과 수시 경쟁률을 비공개한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정 협의회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2025학년도 경쟁률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일부 의대생 "환자 죽어도 감흥 없다"

커뮤니티서 "국민 개돼지" 발언... 정부, 수사 의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뚫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를 넘은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라 나오며 지탄을 받자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 '메디스테프'에는 최근 '응급실 뺨뺨'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견민' '개돼지' '조센징'이라고 칭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의대생은 최근 "조선인이 응급실 뚫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봤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민 개돼지 등 현장을 담은

음뽀"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는 비속어를 섞어 '감흥 있다. 흥이 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 못 받아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패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의대생 게시판에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었다.

또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글에는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 부역자"라며 복귀 전공의 등 현장을 담은

의료진을 비난하는 듯한 댓글도 달렸다. 한 의대생은 "드러눴을수록 의사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사는 검사, 변호사 따위와 달리 원초적이고 필수적이며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을 안 할수록 상대적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글 작성자는 "개돼지들 인터넷으로 (의사) 욕하다기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바로 주변에 의사 있나 찾은 것"이라며 "(현 상황) 특정 한계치를 넘으면 조선 개돼지들은 이를 갈면서도 (정부에) 의사들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라고 하게 돼있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조선 멸망하고 조선인들 다 죽는 거 보고 싶다" "다 죽어라. 니들(정부)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등의 발언들이 난무했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제28회 with 한약우

봉화송이축제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비하진다.

2024. 10. 3 목 ▶ 10. 6 일 [4일간]

봉화내성천변 일원